

주간 전남 농업

VOL. 246

Jeonnam Agricultural Information

2019년 8월 둘째주

주간 날씨정보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구름이 많겠음
저비용, 고소득 농업기술 정보 '알 낳는 닭' 시원한 물로 면역력·산란율 '쑹'
정책동향 및 홍보 "과일 맛있는 온도 스티커만 봐도 알아요!"
전남 시군 농정 동향 완도군, 기능성 색깔보리 5종을 첫 출하했다
해외 농업정보 해외 곡물시장 일일동향 ('19. 08. 12. 시카고 선물거래소)



전라
남도 농업기술원
Jeollanam-do Agricultural Research & Extension Services



목차 및 요약

1. 주간 날씨정보 5

- ▶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구름이 많겠음
- ▶ 기온은 평년(최저기온 : 22 ~ 24도, 최고기온 : 29 ~ 31도)보다 조금 높겠음
- ▶ 강수량은 평년(6 ~ 14mm)보다 많겠음

2. 농산물 병해충 발생정보 6

- ▶ 채소 : (예보) 역병, 탄저병, 고랭지 무·배추 무름병, 뿌리혹병
- ▶ 과수작물 : (예보) 탄저병·사과갈색무늬병·점무늬낙엽병

3. 농산물 관측정보 7

- ▶ 사과, 배
- ▶ 포도, 복숭아

4. 주요 농축산물 가격정보 12

- ▶ 품목별 도소매 정보
- ▶ 가축 및 축산물 산지시세

5. 수출입 동향 16

- ▶ 전남농기원, 유자제품 연구개발비 15억 확보

6. 저비용·고소득 농업기술정보 17

- ▶ ‘알 낳는 닭’ 시원한 물로 면역력·산란율 ‘쑥’
- ▶ 벼 흰잎마름병, 이렇게 관리 하세요
- ▶ ‘털 없는 복숭아’ 더 달고 덜 신 새 품종 첫 보급
- ▶ 밭작물, 땅 ‘속’ 물 관리로 가뭄에도 ‘쑥쑥’
- ▶ 인삼 재배지에 미생물·퇴비 섞어 뿌리니, 병 줄어
- ▶ ‘월동배추’, 저장기간 늘려 봄부터 여름까지 맛본다

7. 정책 동향 및 홍보안내 25

- ▶ “과일 맛있는 온도 스티커만 봐도 알아요!”
- ▶ 전남농기원, 절화작약 재배기술 책자 발간
- ▶ 전남도, 농수산물 1천200억 원 구매약정
- ▶ 전남한돈협회, 돼지고기 나눔으로 이웃사랑 실천

8. 전남 시군 농정 동향 30

- ▶ 담양군, 한우 저등급·저지방 부위 건조숙성으로 부가가치 향상
- ▶ 담양군, 농기계임대사업 종합평가에서 최고성적 거둬
- ▶ 담양군, 딸기가공연구회 딸기잼에도 다양화를 도전하다
- ▶ 곡성군, 석곡농협 백세미 친환경유기농박람회서 뜨거운 인기

- ▶ 고흥군, 벼 병해충 적기방제 총력
- ▶ 화순군, 고품질 쌀 생산 위해 병해충 방제 지원
- ▶ 해남군, “고추 가격안정 위해 채소가격안정제 확대 필요”
- ▶ 해남군, 전국 최고! 고구마 조직배양묘 분양 신청하세요
- ▶ 무안군, 국내최대 곡물유통 전문업체와 1,000억 원 구매약정 체결
- ▶ 무안군, 한우 전문가 양성 교육 실시
- ▶ 장성군, “농작업 재해, 농업인 안전보험으로 보상 받으세요”
- ▶ 장성군, 새콤달콤한 ‘장성 포도’로 생기 넘치는 여름!
- ▶ 완도군, 완도자연그대로 감귤 명품화 사업
- ▶ 완도군, 기능성 색깔보리 5종을 첫 출하했다
- ▶ 신안군, 양파생산 노력 및 비용절감을 위한 기계정식 교육
- ▶ 진도군, “제15회 전라남도 농업경영인대회” 개최

9. 해외 농업정보 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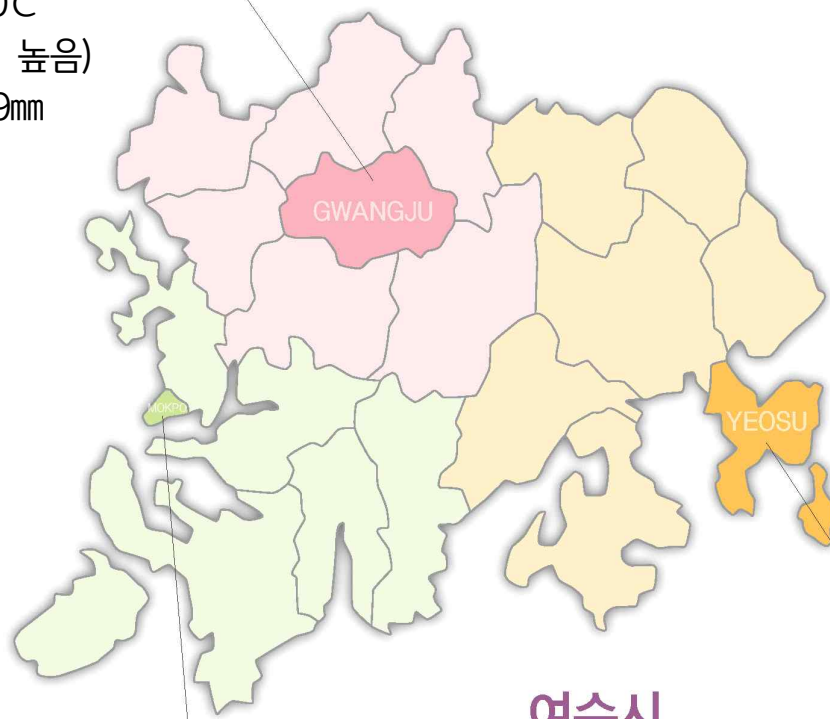
- ▶ 해외 곡물시장 일일동향 ('19. 08. 12. 시카고 선물거래소)

10. 농식품 빅데이터(재배기술) 정보제공 홈페이지 소개 47

- ▶ 농촌진흥청
- ▶ 농사로
- ▶ 전라남도농업기술원

광주광역시

- 평균기온 : 28.6℃
(평년대비 2.1℃ 높음)
- 최고기온 : 32.3℃
(평년대비 1.4℃ 높음)
- 최저기온 : 25.0℃
(평년대비 1.7℃ 높음)
- 강 수 량 : 10.9mm



목포시

- 평균기온 : 27.9℃
(평년대비 1.6℃ 높음)
- 최고기온 : 30.9℃
(평년대비 0.6℃ 낮음)
- 최저기온 : 25.0℃
(평년대비 1.5℃ 높음)
- 강 수 량 : 7.0mm

여수시

- 평균기온 : 28.6℃
(평년대비 2.7℃ 높음)
- 최고기온 : 31.9℃
(평년대비 2.9℃ 높음)
- 최저기온 : 25.4℃
(평년대비 1.8℃ 높음)
- 강 수 량 : 9.7mm

2

농작물 병해충 발생정보



주요 병해충 발생정보

농촌진흥청에서 농작물 병해충 발생정보를 발표했으니 병해충 피해를 받지 않도록 적기 방제에 노력하여 주시고, 관계기관에서도 널리 홍보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량작물	· 예 보	병	· 벼 잎도열병, 잎집무늬마름병, 흰잎마름병, 키다리병
		해충	· 멸강나방, 열대거세미나방, 멸구류, 혹명나방 등
채소	· 예 보	병	· 역병, 탄저병, 고랭지 무·배추 무름병, 뿌리혹병
		해충	· 담배나방, 총채벌레
과수작물	· 예 보	병	· 탄저병·사과갈색무늬병·점무늬낙엽병
		해충	· 돌발해충, 심식나방류, 응애류, 노린재류

※ 본 병해충 발생정보는 <http://nongsaro.go.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출처 : 농촌진흥청

올해 전반적인 과일 생육 양호하여 생산량 증가 전망

2019년 주요 과일 생산량 전망 (전년 대비 증감률)



8월 주요 과일 출하 및 가격 전망 (전년 대비)

	사과	배	감귤	포도	복숭아
8월 출하량	증가	증가	증가	감소	증가
8월 가격	하락	강보합	하락	보합	하락

추석 성수기 출하량 (전년 대비 증감률)

	사과	배	단감
출하량	5.1% 증가	4.4% 증가	12.7% 감소

*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사과

동향 : 7월 사과 가격 전년 대비 상승

- 7월 후지 평균 도매가격(가락시장)은 2018년산 후지 저장량감소로 반입량이 줄어 전년보다 39% 높은 상품 10kg상자에 3만 1,100원(중품 2만 200원)이었다.
- 7월 쓰가루 평균 도매가격은 반입량이 전년보다 다소 증가하였으나, 저장사과의 가격 강세로 전년 대비 8% 높은 상품 10kg상자에 3만 1,600원(중품 2만 2,300원)이었다.

생육: 올해 사과 생육상황 전년보다 양호

- 7월 말 기준, 사과 생육상황은 생육기 적절한 강우와 기온으로 폭염 피해가 심했던 전년보다 좋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야간 기온이 전년보다 낮아 전반적으로 과비대가 양호하며, 동녹 및 일소 피해가 적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 병해충 발생 정도는 전년보다 전반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출하 : 8월 사과 출하량 전년보다 증가 전망

- 8월 사과 출하량은 생산량 증가로 전년보다 6% 많겠으며, 9월 출하량도 전년보다 1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8월에 출하될 쓰가루의 크기, 당도, 모양 등 전반적인 품질은 생육기 기상 호조로 전년보다 좋을 것으로 예상된다.



배

🗨️ 생육 : 올해 배 생육상황 전년보다 양호

- 2019년산 배 생육상황은 생육기 기상 호조로 개화기 저온 피해가 극심했던 전년보다 양호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만, 착과량이 많거나 관수 시설이 미비한 일부 농가에서는 과 비대가 다소 부진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 2019년 제5호 태풍 ‘다나스(7.19.~20.)’로 인해 남부 지역의 일부과원에서 낙과가 발생하였으나, 피해 규모가 크지 않아 배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 병해충 발생은 전반적으로 전년보다 적은 것으로 조사 되었다. 특히, 봄철 적절한 강우로 병 발병률이 전년 대비 감소하였고, 적기 방제 노력으로 해충 발생도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장마 이후 나방류 발생이 증가할 우려가 있으며, 저장성과 상품성에 악영향을 미치는 깍지벌레 발생도 증가하고 있어 철저한 방제가 필요하다.

🗨️ 생산량 : 2019년산 배 생산량 전년 대비 14% 증가 전망

- 올해 배 생산량은 23만 1천 톤 내외로 전년보다 14% 많으나, 평년보다는 9% 적은 수준으로 전망된다. 이는 재배면적이 전년보다 7% 감소(통계청)하였으나, 생육기 기상 호조로단수가 2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다만, 전년도에 이어 개화기 이상저온 등의 영향으로 기형과와 유체과(숫배) 발생이 많아 상품과율은 다소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포도

🔊 생육 : 노지포도 생육상황 전년대보다 양호

- 7월 말 기준, 노지포도 생육상황은 폭염 피해가 컸던 전년대보다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만, 경북과 충북 일부 과원에서 저온으로 인한 꽃떨이 현상이 발생하였으나, 피해 정도는 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 병해충 조사결과, 금년 병해충 발생은 전년대보다 현저히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만, 경기 안성·화성에서 노린재와 선녀벌레 발생률이 전년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생산량 : 2019년 포도 생산량 전년대보다 3%감소 전망

- 올해 포도 생산량은 전년 대비 3% 적은 17만 톤 수준으로 전망된다.
- 시설포도 생산량은 개화기 저온으로 단수가 3% 감소하나, 성목면적이 4% 증가(통계청)하여 전년대보다 1% 증가한 2만 3천 톤으로 전망된다.
- 노지포도의 경우 단수 증가(5%)에도 성목면적이 9% 감소(통계청)하여 생산량은 전년대보다 4% 적은 14만 7천 톤 수준으로 예상된다.
- 품종별로는 성목면적 감소로 캠벨얼리와 거봉 생산량이 전년대보다 각각 4%, 3% 적을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샤인머스캣 생산량은 성목면적이 늘어 128%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복숭아

🗨️ 생육 : 올해 복숭아 생육상황 전년 대비 양호

- 7월 말 기준, 복숭아 생육상황은 전년보다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과원에서는 7월 중순 태풍 다나스와 7월 하순 집중호우의 영향으로 열과 및 낙과가 발생하였으나, 피해 정도는 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전체 병해충 발생 정도는 전년보다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만, 세균성구멍병과 잿빛무늬병은 7월 잦은 비로 방제가 원활하지 않았던 일부 과원에서 발생률이 증가하였으나, 전체 생산량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으로 파악되었다.
- 한편, 경기 이천, 충북 영동, 경북 영천, 전남 순천 등에서는 핵할 발생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생산량 : 2019년 복숭아 생산량 전년보다 12%증가 전망

- 올해 복숭아 생산량은 전년보다 12% 많은 23만 1천 톤 수준으로 전망된다. 재배면적이 전년보다 2% 감소(통계청)하였지만, 전년보다 착과량이 많고 작황이 양호하여 단수가 14%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 품종별로는 천도계, 유모계 생산량이 전년 대비 각각 12%, 1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품목별 도소매 정보

식량작물

(2019. 08. 12. 기준 / 단위: 원)

쌀(일반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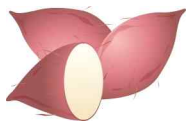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8/12)	1주일전 (8/05)	전년대비
20kg	48,980	48,980	↑ 6.7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48,980	45,920	39,467	↑ 24.1

콩(백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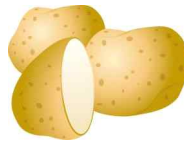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8/12)	1주일전 (8/05)	전년대비
35kg	198,200	198,200	↑ 11.6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197,800	177,600	155,200	↑ 27.7

고구마(밤)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8/12)	1주일전 (8/05)	전년대비
10kg	28,600	25,600	↓ 31.3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30,320	41,600	32,110	↓ 10.9

감자(수미)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8/12)	1주일전 (8/05)	전년대비
20kg	21,500	21,600	↓ 51.5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20,840	44,350	29,053	↓ 26.0

채소류

배추(고랭지)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8/12)	1주일전 (8/05)	전년대비
10kg	8,400	8,300	↓ 44.6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	15,150	12,070	↓ 30.4

양배추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8/12)	1주일전 (8/05)	전년대비
8kg	5,000	5,300	↓ 75.2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5,960	20,150	8,115	↓ 38.4

오이(다다기계통)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8/12)	1주일전 (8/05)	전년대비
100개	59,333	78,667	↓ 8.5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43,933	64,833	65,022	↓ 8.7

애호박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8/12)	1주일전 (8/05)	전년대비
20개	20,800	35,800	↑ 5.3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11,660	19,750	17,543	↑ 18.6

채소류

건고추(화건)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8/12)	1주일전 (8/05)	전년대비
30kg	523,600	535,600	↓ 14.2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560,600	610,000	370,000	↑ 41.5

풋고추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8/12)	1주일전 (8/05)	전년대비
10kg	50,400	39,200	↓ 3.8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46,400	52,400	40,253	↑ 25.2

마늘(깐마늘)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8/12)	1주일전 (8/05)	전년대비
20kg	90,000	90,000	↓ 28.0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91,000	125,000	125,000	↓ 28.0

양파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8/12)	1주일전 (8/05)	전년대비
20kg	10,300	9,200	↓ 34.2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8,380	15,650	19,107	↓ 46.1

당근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8/12)	1주일전 (8/05)	전년대비
20kg	29,200	27,400	↓ 39.4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30,960	48,150	35,920	↓ 18.7

대파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8/12)	1주일전 (8/05)	전년대비
1kg	2,040	2,040	↑ 6.5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1,756	1,915	1,894	↑ 7.7

파프리카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8/12)	1주일전 (8/05)	전년대비
5kg	22,000	15,200	↓ 14.1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13,080	25,600	18,113	↑ 21.5

수박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8/12)	1주일전 (8/05)	전년대비
1개	17,600	18,600	↓ 32.5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18,120	26,080	18,160	↓ 3.1

토마토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8/12)	1주일전 (8/05)	전년대비
10kg	20,600	17,000	↑ 5.9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17,360	19,450	17,750	↑ 16.1

방울토마토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8/12)	1주일전 (8/05)	전년대비
5kg	13,200	13,200	↓ 12.3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14,000	15,050	14,590	↓ 9.5

과일류

사과(후지)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8/12)	1주일전 (8/05)	전년대비
10kg	32,800	36,000	↓ 9.9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41,480	36,400	42,461	↓ 22.8

배(신고)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8/12)	1주일전 (8/05)	전년대비
15kg	74,600	76,000	↑ 109.6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65,520	35,600	50,467	↑ 47.8

참다래(수입)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8/12)	1주일전 (8/05)	전년대비
10kg	41,800	42,000	↓ 0.1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41,880	41,850	43,083	↓ 3.0

축산물(소매가)

쇠고기(한우등심)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8/12)	1주일전 (8/05)	전년대비
100g	8,382	8,483	↑ 5.8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8,276	7,924	7,507	↑ 11.7

닭고기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8/12)	1주일전 (8/05)	전년대비
1kg	5,073	5,121	↓ 2.1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5,095	5,183	5,243	↓ 3.2

특용작물

참깨(백색)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8/12)	1주일전 (8/05)	전년대비
30kg	502,600	502,600	↑ 0.9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498,600	498,350	526,200	↓ 4.5

느타리버섯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8/12)	1주일전 (8/05)	전년대비
2kg	13,000	13,000	↓ 16.1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12,640	15,500	13,413	↓ 3.1

새송이버섯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8/12)	1주일전 (8/05)	전년대비
2kg	7,200	6,800	↓ 0.7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6,600	7,250	7,413	↓ 2.9

돼지고기(삼겹살)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8/12)	1주일전 (8/05)	전년대비
100g	1,881	1,869	↓ 14.7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1,923	2,206	2,192	↓ 14.2

계란(특란)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8/12)	1주일전 (8/05)	전년대비
30개	4,976	5,034	↑ 4.5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5,157	4,760	5,725	↓ 13.1

축산물(소매가)

우유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8/12)	1주일전 (8/05)	전년대비	
1L	2,616	2,616	↑	3.3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2,616	2,532	2,541	↑	3.0

※ 1개월전, 1년전은 해당일자 기준 5일 이동평균 가격임
평년은 5년간(금년 제외) 해당일에 대한 최고값과 최소값을 제외한 3년 평균값임

*자료 출처 : aT KAMIS(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가축 및 축산물 산지시세

(2019. 08. 12. 기준 / 단위 : 원)

한우(천원/600kg)

구분	금주 가격	전주 가격	1년전	등락률(%)	
				전주대비	전년대비
암	5,518	5,542	5,605	↓ 0.4	↓ 1.6
거세	6,629	6,756	6,887	↓ 1.9	↓ 3.7

한우송아지(천원/6~7월)

구분	금주 가격	전주 가격	1년전	등락률(%)	
				전주대비	전년대비
암	3,183	3,282	3,049	↓ 3	↑ 4.4
수	3,970	4,082	4,025	↓ 2.7	↓ 1.4

육우(천원/600kg)

	금주가격	전주가격	1년전
	3,203	3,059	3,640
	등락률	전주대비	전년대비
		↑ 4.7	↓ 12

젖소수송아지(천원/7일령)

	금주가격	전주가격	1년전
	456	456	227
	등락률	전주대비	전년대비
		0.0	↑ 100.9

돼지(천원/110kg)

	금주가격	전주가격	1년전
	373	348	436
	등락률	전주대비	전년대비
		↑ 7.2	↓ 14.4

육계(원/kg)

	금주가격	전주가격	1년전
	982	1,098	1,820
	등락률(%)	전주대비	전년대비
		↓ 10.6	↓ 46.0

계란(원/특란10개)

	금주가격	전주가격	1년전
	900	874	917
	등락률	전주대비	전년대비
		↑ 3.0	↓ 1.9

오리(원/kg)

	금주가격	전주가격	1년전
	2,200	2,200	2,567
	등락률(%)	전주대비	전년대비
		0.0	↓ 14.3

*자료 출처 : 전라남도 축산정책과

☞ 전남농기원, 유자제품 연구개발비 15억 확보

- 유자수출 비즈니스 전략 모델 구축 마련 -

- 전라남도농업기술원(원장 김성일)은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농식품 수출비즈니스 전략 모델 구축사업”에서 유자제품 수출확대를 위한 연구개발비(R&D) 15억을 확보하여 연구개발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 이 연구프로젝트는 지역 명품 유자를 재배단계에서부터 체계적인 관리로 상품을 기획하여, 수출까지 아우르는 비즈니스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것으로 오는 2021년까지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지앤비, 보해양조, 황금유자, JHE글로벌 등 7개 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한다.
- 농업기술원은 유자의 재배기술을 확립하고, 대학 및 기업의 연구소에서는 유자추출물을 이용한 신제품을 개발하여, 도내 제조기업과 수출기업에서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비즈니스모델을 개발하는 것으로 수출용 유자제품 고급화를 통한 해외시장 개척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전남도 유자 재배면적은 808ha로 전국대비 87%를 점유하고 있다. 그 중 고흥군에서 544ha를 재배하는 지역 대표 특산물이다.
- 전남농업기술원 자원경영과 김덕현 팀장은 “전남지역 명품 농산물 유자를 활용한 수출비즈니스모델 기술개발로 수출시장을 개척하여 유자재배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전라남도농업기술원

☞ ‘알 낳는 닭’ 시원한 물로 면역력·산란율 ‘쑥’

- 농촌진흥청, 산란용 닭 냉음용수 급수 기술 개발... 7일 연사회 -

-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여름철 계속되는 무더위에 산란용 닭이 스트레스를 적게 받고 알을 잘 낳을 수 있도록 산란용 닭 냉음용수 급수 기술을 개발했다.
- 산란용 닭은 체온이 높고 땀샘이 없어 체온 조절이 어렵다. 기온과 습도가 높은 여름에는 고온 스트레스로 산란율이 떨어지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 이번에 개발한 기술은 공기-물 히트펌프를 이용한 것이다. 15℃ 정도의 냉수를 생산해 음용수 탱크에 저장한 다음 급수 배관과 급수기(nipple)로 물을 자동 공급한다.
- 이 기술을 산란용 닭 사육에 적용한 결과, 기존 방식보다 사료요구율(체중 1kg을 증가시키기 위해 소요된 사료양)은 2.0에서 1.95로 개선되었고, 산란율도 84.38%에서 88.0%로 좋아졌다.
- 고온 스트레스가 줄어 산란용 닭의 혈액 내 알부민 수치는 6% 오르고, AST2)는 14%, 콜레스테롤 수치는 13% 낮아졌다.
- 냉음용수를 마신 산란용 닭은 면역력이 좋아진 것으로 확인됐다.
- 농촌진흥청은 이번에 개발한 산란용 닭 냉음용수 급수 기술에 대해 특허출원 축사시설용 내부 온도강화 및 음용수 공급시스템 및 방법(10-2018-0161566)과 산업체 기술 이전을 완료했으며, 7일 전북 전주에서 현장연사회 후 산업화 할 계획이다.

*출처 : 농촌진흥청

벼 흰잎마름병, 이렇게 관리 하세요

- 고온다습할 때 쉽게 확산... 의심 증상 발견 시 진단 받아야 -

-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전남 순천에서 발생한 벼 흰잎마름병 확산을 막기 위해 조기 진단과 방제에 주의를 당부했다.
- 벼 흰잎마름병은 7월 초순 또는 중순부터 발생한다. 태풍이나 장마가 지난 뒤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쉽게 퍼진다.
- 농촌진흥청은 해마다 벼 흰잎마름병 발생을 조사하고 확산에 대비하고 있다.
- 병에 걸리면 바람, 가뭄, 염(소금기에 의해 작물이 피해를 받는 경우) 등의 피해와 비슷한 증상을 보이므로 정확한 진단이 중요하다.
- 병징(병증세)은 주로 잎 가장자리를 따라 하얗게 마르고 테두리는 노란색이다. 경우에 따라 병반(병무늬)에서 노란색 세균 유출물이 관찰되기도 한다.
- 발병 시 광합성을 제대로 할 수 없어 쌀 수량이 줄고 품질도 떨어진다.
- 병이 의심되는 경우 해당 시·군 농업기술센터나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상담(1544-8572) 또는 국립식량과학원 작물기초기반과(063-238-5343)에 진단·의뢰하면 된다.
- 벼 흰잎마름병은 병원균이 잡초나 벼집에서 월동하여 논물을 타고 벼 잎에 침입하므로 논둑과 농수로를 정비하여 사전에 방제하는 것이 중요하다.
- 상습발생지에서는 저항성 벼인 ‘안백’, ‘만백’, ‘신진백’ 등을 재배하는 것도 대안 중 하나이다.
- 병이 발생하면 등록된 약제를 사용기준에 따라 살포하는데, 약제 정보는 농촌진흥청 농약정보서비스(pis.rda.go.kr) 또는 농사로 누리집(www.nongsaro.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 농촌진흥청

☞ ‘털 없는 복숭아’ 더 달고 덜 신 새 품종 첫 보급

- 간편 소비형 '스위트퀸' · '이노센스' 묘목 농가 분양 -

-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기존의 천도(털 없는 복숭아) 품종과 달리 신맛이 적고 단맛이 풍부한 천도 새 품종 ‘스위트퀸’과 ‘이노센스’ 묘목을 농가에 처음으로 보급한다.
- 복숭아의 82%는 털복숭아, 18%는 털이 없는 복숭아로, 천도는 털이 없어 먹기 편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새콤한 맛이 강해 인기가 덜한 편이다.



▲ 복숭아 ‘스위트퀸’



▲ 복숭아 ‘이노센스’

- 이번에 보급하는 품종은 털복숭아의 달콤함과 털 없는 천도의 껍질째 먹을 수 있는 장점을 살려 만든 간편 소비형 복숭아 품종이다.
- ‘스위트퀸’은 황육계(속살이 노란색) 천도로 숙기(익는 시기)는 7월 하순에서 8월 상순이며 무게는 280g, 당도는 14.0브릭스(oBrix)이다. 신맛을 나타내는 산도는 0.25% 정도로, 기존의 천도 품종인 ‘선프레’, ‘천홍’ 산도(0.90%)의 3분의 1 수준이다.
- 재배 지역은 꽃이 피는 시기 저온 피해와 서리 피해가 없는 곳이 알맞다. 개화기에 지속해서 기온이 낮을 경우 수정이 잘 되지 않는데 이로 인해 과일 대칭이 맞지 않는 불량 과일이 생길 수 있다.

- ‘이노센스’는 8월 상순에 수확할 수 있는 품종으로, 무게는 230g, 당도는 14.0브릭스(oBrix), 산도는 0.30% 정도다.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신비 복숭아(최근 유통되기 시작한 흰색 과육의 천도 품종으로 시지 않고 달콤함)’(6월 하순 숙기)와 같은 종류로 과육(속살이 흰색)이 흰색이라는 특색이 있다.
- 같은 시기 유통되는 다른 과일보다 크기가 작은 편이기 때문에 과일 크기를 키우기 위해 꽃과 열매숙기를 꾸준히 하고 건조한 봄철 주기적으로 물을 공급해줘야 한다.
- ‘스위트퀸’과 ‘이노센스’ 모두 색이 잘 드는 품종으로, 착색을 위해 봉지를 씌우는 기존 복숭아와 달리 봉지 없이 재배가 가능하다. 다만, 다른 천도처럼 세균성구멍병 등 병해충에 약하므로 비가 자주 오거나 바람이 강하게 불 경우 제때 방제를 해줘야 한다.
- 이들 품종의 묘목 구매를 원하는 농가에서는 해당 품종을 통상 실시 받은 종묘 업체로 문의하면 된다. 종묘 업체는 (사)한국과수종묘협회 (☎054-435-5338)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과수과 김명수 과장은 “최근 유통을 시작한 달콤한 천도를 먹어본 소비자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며, 입소문을 타고 인지도가 상승하고 있다. 앞으로 시지 않고 먹기 편한 국산 천도 품종 개발로 소비자의 수요를 충족시킬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출처 : 농촌진흥청

발작물, 땅 ‘속’ 물 관리로 가뭄에도 ‘쑥쑥’

- 정보통신기술 기반 관개 기술 개발... 물 적게 쓰고도 생산량 늘어 -

-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설치와 관리가 간단하고 농업 용수도 절약할 수 있는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지중점적 자동 관개 기술(노지 발작물에 대한 물관리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땅속에 관수호스를 묻어 작물의 뿌리 부근에 필요한 만큼의 물을 공급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 가뭄이 잦아지면서 지난해에는 발작물 재배지 1만 8400ha에서 가뭄피해가 발생했으며, 콩 농가는 평균 수량이 177kg/10a으로 전년 대비 5.8% 줄었다. 노지 발작물 피해가 늘고 생산성 변동도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 이번에 개발한 기술은 노지 발작물 재배 시 수월한 물 관리를 위한 것으로, 땅 속에 관을 묻고 작물의 뿌리 쪽에 필요한 양만큼 물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 점적호스(일정간격으로 구멍이 뚫려 있어 물이 일정하게 나올 수 있는 호스)를 트랙터에 설치할 수 있도록 전용 매설기계를 개발, 특허 등록을 마쳤다. 주행하면서 최고 40cm 깊이로 점적호스를 묻을 수 있고, 매설간격도 조절할 수 있다.
- 또한, 스마트폰을 활용해 실시간 토양 속 수분 관리도 가능해 부족한 양만큼 물을 공급하는 자동관개시스템도 개발했다.
- 지중점적 관개시스템을 활용하면 노동력 부담은 덜고 물 이용 효율은 높여 농업용수 절약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 시스템 설치에 드는 비용은 단위 면적(ha)당 약 2900만 원으로, 기존의 스프링클러(1700만 원)에 비해 초기 설치비용은 더 높다. 하지만, 반복적인 설치와 철거가 필요 없어 물관리에 소요되는 노동력 투입 비용이 들지 않는다.
- 이 기술은 작물의 뿌리 가까이에 물을 공급하므로 기존 방식 대비 유실되는 물이 적어 농업용수가 22% 절약 되었다.
- 또한, 무관개(2016~2018) 대비 콩은 26%, 참깨는 37% 수량이 늘었으며, 지표점적(2018) 대비 콩은 9%, 참깨는 8%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농촌진흥청은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지중점적 자동 관개 기술’을 전국 9개 시군의 농가에 신기술 시범사업으로 보급하고 있다. 시범 지역은 점차 늘려갈 계획이다.
- 대단위 콩 재배지인 전북 김제의 경사지에서 시험(2017~2018)한 결과, 관수 노력비 절감과 수량성 증대로 농가의 기술만족도가 93%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 이번에 개발한 관개 기술이 노지 밭작물까지 확대됨으로써 밭농업의 경쟁력을 키우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정태욱 생산기술개발과장은 “지중점적 자동관개기술을 이른 시기에 보급해 밭작물 재배 시 물 관리에 드는 노동력과 농업용수 사용량은 낮추고 생산량은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출처 : 농촌진흥청

☞ 인삼 재배지에 미생물·퇴비 섞어 뿌리니, 병 줄어

- 10a당 미생물 10kg, 퇴비 300kg... 뿌리썩음병 22.7% 줄어 -

-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인삼 재배 예정지에 병원균의 생육을 막는 ‘길항 미생물’과 잘 발효된 ‘퇴비’를 섞어 뿌렸더니 인삼 수량은 늘고 병 발생은 줄었다고 밝혔다.
- 주로 바실러스속 세균(*Bacillus subtilis*)으로 만드는 길항미생물은 병원균을 직·간접적으로 억제한다. 옥신 등 생장촉진물질로 생육을 촉진하고, 면역반응을 활성화해 뿌리썩음병 억제에 효과가 있다.
- 그러나 새로운 재배지에 인삼이 잘 정착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농촌진흥청에서는 길항미생물을 활용해 이를 극복하고 오랫동안 밀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왔다.
- 연구진은 5월~9월 사이 인삼 예정지에 잡초가 자랄 수 없게 녹비작물을 심었다. 한 곳에는 퇴비만 뿌리고, 나머지 한 곳은 10a당 길항미생물 분말 제제 10kg과 발효한 퇴비 300kg을 섞어 뿌렸다.
- 이후 생육 특성과 병 발생률을 관찰한 결과, 미생물을 뿌린 밭의 3년생 인삼은 미생물 처리를 하지 않은 대조구보다 뿌리 무게(생근중)는 뚜렷이 증가했고, 뿌리썩음병 발생률은 22.7%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났다.
- 보통 길항 미생물로 예정지를 관리할 때는 미생물 분말을 직접 뿌리거나, 물에 희석해 사용한다. 본밭에는 종자·묘삼에 길항미생물을 직접 주거나 미생물에 종자·묘삼을 담가둔 다음 파종하거나 이식한다.
- 퇴비와 함께 뿌리는 방법은 미생물에 묘삼을 담가두거나 인삼 재배 포장에 직접 뿌리는 방법보다 노동력이 줄어 편할 뿐 아니라, 인삼의 고질병인 뿌리썩음병을 막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 : 농촌진흥청

‘월동배추’, 저장기간 늘려 봄부터 여름까지 맛본다

- 팻릿 단위 기체조성 포장 기술 개발로 24주간 저장 가능 -

-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16주 가량이던 월동배추의 저장 기간을 24주까지 늘릴 수 있는 팻릿 단위 기체조성(MA) 포장 기술을 개발했다.
- 배추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재배하는 채소 중 하나다. 특히, 달고 시원해 김치로 많이 먹는 월동배추를 찾는 소비자가 늘면서 장기 저장 기술 개발이 요구돼 왔다.
- 이번에 개발한 기술은 기존 배추 저장 시 수분 손실을 막기 위해 비닐덮개를 이용하던 것과 달리 완전히 밀폐해 호흡을 억제하는 방식이다.
- 실험에 사용된 배추는 올해 1월 수확한 월동배추로, 팻릿 단위로 MA 포장을 적용해 저온저장고(2℃)에 24주간 저장했다.
- 그 결과, 팻릿 MA 포장을 적용한 경우 배추의 호흡에 의한 내부 기체 조성은 산소 2~6%, 이산화탄소 17~22%로 안정화됐다.
- 기존 비닐덮개만 씌우는 방식은 중량이 줄면서 당이 농축돼 초기 당도는 오르지만 부패가 진행되면서 당도가 급격히 떨어졌다. 반면, MA 포장 배추는 24주까지 통계적인 차이 없이 유지됐다.
- 농촌진흥청은 이번에 개발한 기술을 배추뿐만 아니라 시금치 등 다른 엽채류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산업체와 연구 중이다.
- 농촌진흥청은 지난 9일 농촌진흥청 농업공학부에서 열린 현장연사회에서 월동배추 장기 저장 기술에 대한 연구성과를 소개하여 농업인 등으로부터 높은 호응을 받았다.

*출처 : 농촌진흥청



“과일 맛있는 온도 스티커만 봐도 알아요!”

- 농촌진흥청, 수박의 최적 식감 육안 판정 색변화 스티커 센서 개발 -

-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수박의 최적 식감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색변화 스티커 센서를 개발했다.
- 이번 연구는 과일이 ‘시원해야 맛이 좋다’라는 느낌을 과학적으로 구명한 것이다.
- 이번에 개발한 색변화 스티커 센서는 온도에 따라 단맛을 느낄 수 있는 식감이 차이가 나는 사실에서 착안했다.
- 같은 과일이라도 냉장 보관한 수박과 상온에 둔 과일의 맛이 다르다. 이것은 온도에 따라 식감이 다르기 때문이다.
- 특히 수박은 수크로스, 프룩토스, 글루코스 등의 과당을 포함하고 있어 온도에 따라 단맛을 느낄 수 있는 식감의 차이가 커 5℃보다는 10℃에서 단맛이 15% 높게 나타난다.
- 우선 최적의 식감을 느낄 수 있는 온도를 구명하기 위해 관능평가를 실시했다. 그 결과 9℃~11℃에서 가장 식감이 좋았다. 스티커 센서는 9℃~11℃에서 붉은색이 나타나도록 만들었으며, 6℃ 이하에서는 보라색, 13℃ 이상에서는 회색이 나타난다.
- 농촌진흥청은 앞으로 과일과 농산물의 식감 시험을 거쳐 적용 품목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출처 : 농촌진흥청



전남농기원, 절화작약 재배기술 책자 발간

- 최신 연구결과와 현장실증 사례 수록 -

- 전라남도농업기술원(원장 김성일)은 최근 소비 트렌드 변화로 재배면적과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유망 화훼 절화작약의 새로운 재배기술을 비롯하여 현장 적용 사례를 정리한 책자를 강진군농업기술센터와 공동으로 발간하였다.
- 도내 절화작약은 전국 재배면적의 90%인 11.7ha가 재배되고 있으나 재배기술과 관련, 정립된 매뉴얼이 부족하여 농업인들이 애로사항을 겪고 있다. 특히 귀농한 농업인들이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지침서 발간이 요구되어 왔다.
- 이번에 발간된 매뉴얼은 절화작약 재배기술의 국내·외 자료뿐만 아니라 농업기술원에서 새롭게 개발한 조기개화를 위한 저온처리 기술, 품질개선을 위한 재배기술 등을 표와 그림을 위주로 설명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또한 강진군농업기술센터(소장 김남균)에서는 지난 2016년부터 3년에 걸쳐 실증재배한 결과를 시기별로 정리하여 농업인들이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저술하였다.
- 전남농업기술원 원예연구소 박민영 연구사는 “이번에 발간된 작약 재배기술 매뉴얼이 농민들의 현장 지침서로서 활용됨으로써 고품질 절화생산과 농가소득 증대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출처 : 전라남도농업기술원



전남도, 농수산물 1천200억 원 구매약정

- 여주농산 등 전국 유통망 업체와 체결...무안쌀진도 꽃게 등 판로 확대 -

- 전라남도는 7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전국 유통망을 가진 기업체와 농수산물 구매약정 및 판로 확대 업무협약을 했다.
- 협약식에는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김산 무안군수, 이해자 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 나광국 도의원, (주)여주농산, 피플앤피플, 바르다 김선생, 롯데백화점 호남충청지역본부 등 기업체 대표가 참석했다.
- (주)여주농산(대표 전오수)은 쌀, 잡곡 등 곡물 도소매 업체다. 무안에서 생산한 쌀 4만t(약 1천억 원)을 구매키로 전라남도, 무안군, 농협양곡(주)무안통합RPC와 약정했다.
- 서울 소재 (주)피플앤피플(대표 김형추)은 전남에서 생산한 딸기, 토마토, 유자, 석류, 사과 등 농산물과 꽃게, 새우 등 수산물을 연간 200억 원어치를 구매키로 했다.
- (주)바르다 김선생(대표 나상균)은 대한민국 100대 프랜차이즈로 선정된 프리미엄 김밥 전문 업체다. 전국 175개 매장에서 김밥 재료로 사용하는 쌀과 김을 연간 20억 원 어치를 구매키로 했다.

- 롯데백화점 호남충청지역본부(본부장 정운성)는 롯데백화점에 친환경 로컬푸드 직매장을 운영하고, 연 4회 이상 직거래 장터를 운영키로 했다. 또한 롯데백화점 온라인몰에 남도장터 업체 입점 등 온라인 판매망 확충에도 협력키로 했다.
- 전라남도는 이번에 협약을 체결한 4개 기업과 상호 유기적 협력을 통해 우수 농수특산물 생산공급 및 판매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기업에서 구매를 희망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농협, 농가 간 계약재배를 통해 신선하고 안정적 농수특산물 생산공급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 김영록 도지사는 “정성스레 키운 농수축산물을 보다 널리 판매하고, 좋은 값에 파는 게 모든 농민의 꿈이자 소망이다”며 “전남 농어민에게 판로를 넓혀드리고, 국민께 품질 좋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나가자”고 당부했다.
- 전라남도는 올해 업무협약을 체결한 롯데슈퍼와 전국 매장에서 지역 농수산물 특별 판매전을 펼치고 있다. 또 공영홈쇼핑에서는 TV홈쇼핑 방송판매를 추진하고 있다.

*출처 : 전라남도



전남한돈협회, 돼지고기 나눔으로 이웃사랑 실천

- 전남도 통해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게 19t 1억 어치 전달 -

- 전남한돈협회(회장 오재곤)는 저소득층 등 어려운 이웃에게 돼지고기를 전달하기 위해 6일 전남도청에서 나눔행사를 진행했다.
- 나눔행사에서 전남한돈협회는 돼지고기 뒷다리살 등 19t(6천410박스/3kg, 1억 원 상당)을 전라남도에 전달해왔다.
- 전라남도는 전달받은 돼지고기를 광역푸드뱅크를 활용해 저소득층,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 전남지역 돼지 사육농가 690여 명으로 구성된 전남한돈협회는 2014년부터 매년 어려운 이웃에게 돼지고기 나눔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전달식에서 “요즘 경기 침체 등 사회 전반적으로 어려운 가운데도 어르신들을 위해 따뜻한 온정의 손길을 보내준 전남한돈협회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 오재곤 회장은 “이번 한돈 나눔행사가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것은 물론 국산 돼지고기 소비 촉진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소외 이웃들에게 작지만 따뜻한 마음이 전달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출처 : 전라남도



담양군, 한우 저등급·저지방 부위 건조숙성으로 부가가치 향상

- 소비자 선호도 증가에 따른 축산농가 소득향상 기대 -

- 담양군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창)는 한우 숙성기술 활용 저지방부위 부가가치 향상 시범사업장에서 건식/습식숙성실을 이용한 한우고기 숙성 활용방법 현장기술지원을 실시했다
- 이날 현장기술지원은 한우 사육농가, 축산관련 담당공무원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조수현연구관이 한우 건조숙성을 위한 환경 조건 및 보존요령 설명 등 기술교육을 실시했다
- 한우고기 숙성은 건조숙성과 습식숙성 2가지 방법이 있으며, 건조 숙성은 부분육을 진공 포장하지 않은 상태로 냉장 보관하거나 걸어둔 채 숙성시키는 것으로 숙성 과정에서 수분 증발로 감량이 발생하나 연도 개선과 함께 맛과 향미가 진하며 조직감이 우수하다. 습식 숙성(진공포장 숙성)은 저장중 식육의 산화와 수분증발 방지, 산소 제거를 통해 미생물 번식을 방지하고 수분증발을 억제하며 연도 개선에 효과적이다.
- 이병창 농업기술센터소장은 “한우고기 건조 숙성기술을 통해 한우 저지방부위의 활용 부가가치가 높아진 만큼 소비자 선호도가 늘어 축산농가 소득증대가 기대된다.”며 “담양군 역점시책으로 추진중인 담양 명품 저지방한우 브랜드 육성사업과 연계하여 한우 숙성기술 활용 시범사업을 확대해 나아갈 계획이다.”고 전했다

*출처 : 담양군(농업기술센터)



담양군, 농기계임대사업 종합평가에서 최고성적 거둬

- 국비 3억 원 확보 ... 노후 농기계 교체해 더 나은 임대서비스 제공 -

- 담양군(군수 최형식)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하는 농기계임대사업 평가에서 상위 1그룹에 포함되는 성과를 거뒀다. 상위 1그룹에 포함된 농기계임대사업소는 노후농기계 교체 사업비로 3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발농사 중심 농기계를 확대할 수 있게 된다.
- ‘농기계임대사업 평가’는 농촌경제연구원 주관으로 올해 세 번째 시행되었으며, 전국 142개 시군의 469개 농기계 임대사업소 전체를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했다.
- 이번 결과는 전담인력 현황, 발농사용 임대농기계 보유율과 임대실적, 정책 참여도와 수행능력 등을 평가지표로 현장 방문 면접조사, 농업인 만족도 조사 등을 토대로 평가한 결과다.
- 군은 평가 결과 전담인력 확보, 발농사용 임대농기계 임대율, 농업인 안전교육, 여성친화형 농기계 보유율 등 다양한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 이번에 확보한 국비 3억 원은 노후 임대 농기계 교체 구입비로 활용해 농기계 고장으로 발생하는 민원을 최소화하고 보다 질 높은 임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출처 : 담양군(농업기술센터)



담양군, 딸기가공연구회 딸기잼에도 다양화를 도전하다

- 농촌진흥청이 특허받은 딸기 고품종 & 휘핑잼 제조기술 교육 -

- 담양군(군수 최형식)은 경쟁력 있는 가공품 생산으로 담양 딸기의 소비촉진을 위해 지난 23일, 딸기가공연구회원 20명을 대상으로 고품종과 휘핑잼 제조기술 교육으로 딸기잼 다양화에 도전한다고 밝혔다.
- 이번 교육은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소속으로 특허기술을 직접 개발한 박보람 연구사를 초빙하여 원하는 형태로 만들어 먹는 고품종과 머쉬멜로우처럼 가볍고 크림미한 식감의 휘핑잼 제조기술을 실습하는 과정으로 진행되었다.
- 담양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지난 6월에도 루바브를 첨가하여 새콤달콤한 맛의 딸기루바브잼 제조교육에 이어 체험에도 활용할 수 있는 고품종과 휘핑잼 기술을 도입하여 우리군 주 농산물인 딸기를 이용해 다양한 가공품을 생산해 농가 소득향상에 기여하고 담양딸기의 우수성을 널리 알릴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출처 : 담양군



곡성군, 석곡농협 백세미 친환경유기농박람회에서 뜨거운 인기

-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 A홀에서 개최된 ‘제18회 친환경유기농 무역박람회’에서 곡성군(군수 유근기)이 석곡농협과 함께 유기농쌀 백세미 홍보관을 운영해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 친환경유기농무역박람회에서는 친환경농산물 홍보관 운영과 전국친환경농산물품평회,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 상담 등을 진행한다. 전국의 내로라하는 친환경유기농 제품들이 소비자와 바이어들에게 선택받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는 각축장이다. (사)한국유기농협회 주최하며, 월간 친환경과 (주)월드전람이 주관하여 진행했다.
- 올해로 세번째 참가한 곡성군은 ‘누룽지향 가득한 특허쌀 유기농 백세미’라는 타이틀로 홍보관을 운영했다. 백세미를 시식한 방문객들은 특유의 식감과 누룽지향에 “반찬 없이 밥만 먹어도 될 정도”라며 극찬했다. 홍보관에서 한 편에서는 1kg, 4kg, 10kg 포장 백세미가 불티나게 판매됐다.
- 석곡농협 한승준 조합장은 “최근 일본 수출규제로 일본여행을 취소한 국민에게 10kg 백세미 500포를 증정하는 이벤트를 성공적으로 마쳤다.”면서 “이번 박람회에서 방문객들의 뜨거운 관심에 백세미의 인기를 다시 한 번 실감했다.”라고 말했다.
- 한편 곡성대표 유기농쌀 백세미는 2017년 친환경유기농박람회에서 국회의장상, 2018년에는 농식품부장관상을 수상하는 등 명실공히 전국 최고의 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출처 : 곡성군



고흥군, 벼 병해충 적기방제 총력

- 기본방제 기간 8월 1 ~ 14일 -

- 고흥군(군수 송귀근)은 8월 1일부터 14일까지 “벼 병해충 기본 방제 기간”을 설정하고 대대적 방제활동 홍보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 최근 고온다습한 기상조건이 지속되어 비료를 과다하게 사용한 논을 중심으로 이삭도열병, 잎집무늬마름병이 발생되었고, 벼 먹노린재가 친환경 단지를 중심으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피해가 우려 되고 있다.
- 이번 기본방제 기간에는 특히 이삭도열병, 잎집무늬마름병과 먹노린재, 멸구류를 중심으로 벼 이삭이 피는 출수기전에 적기 종합방제를 실시해야한다.
- 고흥군에서는 벼 친환경단지의 벼 먹노린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기본방제 기간에 농작물 병해충 방제사업으로 친환경약제를 지원해 벼 출수기전 먹노린재 개체수 감소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다.
- 군 관계자는 “병해충 취약 지역이나 병충해에 약한 품종을 재배하는 농가는 약효가 오래가는 침투이행성 농약으로 방제하고, 멸구류, 먹노린재 등 해충 발생정도에 따라 적기에 방제해야 하며, 여러 가지 농약을 혼용 살포할 경우 약해 발생이 우려되므로 농약안전 사용기준을 맞춰 살포할 것”을 당부했다.

*출처 : 고흥군



화순군, 고품질 쌀 생산 위해 병해충 방제 지원

- 폭염 속 해충 증가 추세...벼 이삭 패기 전 종합방제 시행 -

- 화순군(군수 구충곤)이 오는 16일까지 벼 병해충 기본 방제 기간으로 정하고 현장 기술 지원에 나섰다. 이와 함께 군은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 제때 병해충 방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농가에 당부했다.
- 벼 출수기 전후 병해충 예방·방제로 고품질 쌀의 안정적인 생산 환경을 조성하고, 주요 병해충 방제 효율성 제고와 병충해 피해 발생 최소화를 위해 기본 방제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 최근 벼 병해충을 예찰한 결과, 흰등멸구·먹노린재·나방류와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많이 발생하는 잎집무늬마름병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벼 생육 후기에 많이 발생하는 이삭도열병은 이삭 패기 시작할 때가 방제 적기로 철저한 방제가 필요하다.
- 군은 고령 농업인과 장애인 등 영농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의 방제를 지원하는 농약 방제 일손도우미 지원 사업(800ha, 8000만 원)과 벼 친환경 농업 단지 공동방제 지원 사업(1500ha, 2억4000만 원)을 추진해 병해충 예방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 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최근 계속되는 폭염으로 병해충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며 “병해충이 발생하면 쌀 수량 감소와 품질 저하로 이어지기 때문에 기본 방제 기간에 종합방제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출처 : 화순군



해남군, “고추 가격안정 위해 채소가격안정제 확대 필요”

- 햇 건고추 출하가 시작된 가운데 가격변동폭이 큰 고추 수급안정을 위해서 정부차원에서 최저가격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는 대정부 건의문이 채택됐다.
- 고추주산단지 협의회는 고추산업 공동발전 방안과 주요시책 추진에 따른 관계기관 건의, 국산 고추 애용을 위한 대책방안, 고추산업 육성을 위한 지자체간 정보공유 및 시책홍보 등 기타 필요한 사업을 모색하고자 지난 2004년에 출범했으며, 전국의 주요 고추주산단지 14개 시·군이 참여하고 있다.
- 협의회에서는 채소가격안정제 확대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칼라병 등에 대한 저항성 강한 품종의 개발과 보급, 생산비 절감을 위한 농기자재 지원, 외국산 고추에 대한 관세율 조절과 수입제한 등 내용을 담은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했다.
- 채소가격안정제는 계약재배 농업인의 일정 약정금액을 보전해주고, 대신 면적조절과 출하중지 등 강화된 수급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 매년 급격히 번지고 있는 칼라병 등에 대한 시급한 신품종 개발과 보급, 고추 비가림 시설에 그치고 있는 국비 지원사업을 기타 농기자재까지 확대 지원하는 방안도 건의됐다.
- 특히 건고추에 비해 낮은 관세를 적용받고 있는 냉동고추 및 혼합조미료, 소스 등이 재가공돼 고춧가루로 유통되고 있는 상황으로 관세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수입제한을 통한 국산 고추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에도 인식을 같이 했다.

*출처 : 해남군



해남군, 전국 최고! 고구마 조직배양묘 분양 신청하세요

- 이달 말까지 생산자단체 등에 15만 본 분양 예정, 농가분양은 10월 -

- 해남군은 내년에 재배할 고구마의 조직배양묘 분양 신청을 받고 있다.
- 이번에 분양될 조직배양묘는 가을 공급분과 봄 공급분으로 나누어 전체 15만본을 공급할 예정이다.
- 관내 고구마법인 및 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이번달말까지 분양을 완료할 계획으로 농가 분양 시기는 가을 공급분은 올해 10월 상순부터 12월까지, 봄 공급분은 내년 1월 상순부터 3월까지이다.
- 지난 2007년 전국 최초로 고구마 조직배양묘 보급을 실시한 해남군은 고품질 고구마 생산에 획기적인 전환을 이끌어내며 고구마 산업이 한단계 도약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 조직배양묘는 건강한 고구마의 생장점을 채취해 무바이러스 상태로 배양한 조직묘로 일반묘보다 30% 이상 수량이 높고, 선택과 균일도가 일정해 고품질 해남고구마의 명성을 만들어 오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 해남군 전체 고구마 면적의 90% 이상까지 보급률을 높인 상황으로 군은 조직배양묘분양과 함께 고구마 재배매뉴얼을 마련해 보급하고 재배기반시설 확충, 재배농가 교육 등을 통해 해남고구마의 품질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도 다양하게 실시하고 있다.
- 전남 최대 고구마 산지인 해남은 1,000여 농가, 총 1,914ha의 면적에서 고구마를 재배, 436억 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

*출처 : 해남군



무안군, 국내최대 곡물유통 전문업체와 1,000억 원 구매약정 체결

- 무안군(군수 김산)은 지난 7일 전남도청 서재필실에서 국내 최대 곡물유통 전문업체인 (주)여주농산과 4년간 1,000억 원 규모의 무안 쌀 구매약정을 체결했다.
- (주)여주농산(대표 전오수)은 경기도 시흥시에 소재한 업체이며 쌀, 잡곡 등 곡물을 판매하여 연 1,200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국내 최대 곡물유통 전문업체로 올해부터 4년간 무안 쌀 약 4만 톤을 구매하여 전국에 판매하게 된다.
- 무안군은 무농약 1천9백ha, 유기 3백ha 등 전체 경지의 11%인 2천2백ha에서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고 청정한 자연환경을 유지하며 품질 좋은 쌀을 생산하고 있다.
- 특히 무안 쌀은 게르마늄이 풍부한 논에서 신선한 해풍과 맑은 물로 재배하고 단백질 검사 등으로 철저하게 미질을 관리하고 있어 영양은 물론이고 밥맛까지 좋은 쌀로 알려져 있다.
- 이번 구매약정은 쌀이 매년 수확기의 생산량에 따라 값이 형성되고 풍년인 해는 쌀값이 매년 폭락하는 불안정한 우리나라 쌀 시장을 고려해 무안 쌀이 안정된 판로로 제값을 받으며 판매될 기회를 무안군과 전라남도가 함께 만들어 냈다는 점에서 그 성과가 더 높게 평가된다.
- 한편, 무안군은 이번 약정으로 농협양곡(주)무안지사의 무안 쌀 판매에 따른 포장재, 홍보비 등을 지원한다.

*출처 : 무안군



무안군, 한우 전문가 양성 교육 실시

- 무안군(군수 김산)은 한우농가의 생산성 향상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달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 동안 몽탄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한우농가 및 후계 축산인들을 대상으로 한우 전문가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 황금한우 영농조합법인(회장 안기현) 주관으로 실시된 이번 교육은 한우농가에서 우수한 축 군을 확보하고 번식우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영양 사양관리 기술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졌다.
- 또한, 한우 교배 계획 및 송아지 질병치료 및 예방, 한우 개량을 위한 암소 혈통관리, 한우 경영관리 우수사례 등 4가지 주제를 알기 쉽게 진행해 큰 호응을 얻었다.
- 교육에 참여한 한우 사육농가들은 “한우 사육 전반에 대한 이론 교육 및 우수사례를 바탕으로 진행된 이번 교육이 많은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 안기현 황금한우영농조합법인 회장은 “한우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한우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꾸준한 교육 및 기술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며 “앞으로도 한우산업 선도를 위해 무안군과 협력하여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 한편, 황금한우영농조합법인은 한우농가 생산성 향상 및 한우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1년부터 지속적으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출처 : 무안군



장성군, “농작업 재해, 농업인 안전보험으로 보상 받으세요”

-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비 80% 지원...경제부담 완화로 농업인 큰 호응 -

- 장성군이 농작업 중 농업인이 입은 재해 및 질병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에 나섰다.
- 장성군은 농작업 중 발생하는 신체 상해를 보상하는 ‘농업인 안전보험’의 가입비 80%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해까지 안전보험 가입비의 70%를 지원했으나 올해부터 지원 비율을 10%p 높여 80%를 지원한다.
- 노동집약적인 농업의 특성과 농촌 고령화의 심화로 농업인의 업무상 사고, 질병 발생률은 다른 직업군에 비해 높다. 또 농업인은 일반 근로자와 달리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뜻밖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감당해야 하는 치료비 등의 경제적 부담이 크다.
- 이에 장성군은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농가의 생활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농업인 안전보험’의 가입비를 지원하여 농업인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군에 따르면 올해 지원 목표인 3,800명 중 현재 2,986명(79%)이 가입했다.
-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대상은 만15세~87세(일부상품은 84세)의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영농활동 종사자이며, 지역 농·축협에 방문하면 연중 상시 가입이 가능하다.
- 유두석 장성군수는 “장성의 농업인들이 농업인 안전보험 및 농작물 재해보험에 더욱 많이 가입하여 향후 예기치 못한 농작업 상해와 자연재해 피해 시 든든한 안전장치로 보호 받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출처 : 장성군



장성군, 새콤달콤한 ‘장성 포도’로 생기 넘치는 여름!

- 이달 중순부터 장성 포도 본격 출하...높은 당도, 좋은 품질로 인기 -

- 장성 포도는 고지대의 풍부한 일조량과 큰 일교차 덕분에 당도가 높고 품질이 좋아 40여 년 가까이 소비자들에게 최고의 포도로 사랑받고 있다. 철저한 품질관리 또한 사랑받는 이유 중 하나이다. 장성 포도는 농협공선회의 엄격한 품질관리를 거쳐 농협하나로마트, 공판장 등으로 판매된다.
- 장성군에서 재배되는 포도 품종은 자옥, 캠벨얼리, 샤인머스켓 등이다. 세 가지 품종은 각기 다른 개성 있는 맛과 식감을 자랑한다.
- 이달 15일 경 출하를 앞두고 있는 ‘자옥’은 거봉의 외관과 비슷하나 거봉보다 껍질이 얇고 달콤하며 씨가 없어 어린이와 젊은 층들에게 인기가 많다.
- 특히, 최근 소비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며 핫한 과일로 떠오른 ‘샤인머스켓’은 자옥, 캠벨얼리보다 2배 가량 높은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다. 샤인머스켓은 상온에서도 한 달 이상 장기 저장이 가능하기에 유통 상인들에게도 인기가 높다.
- 장성군에서는 현재 130여 농가가 54ha 면적에 포도를 재배하고 있다. 이중 자옥은 16ha, 캠벨얼리는 20ha, 샤인머스켓은 18ha 규모이다.
- 2014년 60ha이던 포도재배 면적이 지구온난화로 인한 착색불량 등 고온피해로 2017년에는 44ha까지 감소했다.
- 장성군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2017년부터 3년간 22억 원의 사업비를 농가에 지원하고 있다. 이 사업비로 기존 간이 비가림 시설개선사업, 선호 품종인 샤인머스켓으로의 품종갱신, 신규과원 조성사업 등을 추진해 재배면적이 다시 회복되고 있다.

*출처 : 장성군



완도군, 완도자연그대로 감귤 명품화 사업 추진

- 완도군에서는 소안을 비롯한 70농가, 약 27ha에서 감귤을 재배하고 있다.
- 군은 올해 소안 감귤작목반을 비롯한 115농가에 사업비 1억 5천 8백만 원을 지원하여 묘목 11,000주를 공급하였고, 2018년도에는 4,600주를 공급하여 감귤 재배 면적이 27ha로 늘었다고 밝혔다.
- 이에 5년 후에는 감귤 생산량이 200톤 증가하여 농가 소득 창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또한 고품질 명품 감귤이 생산될 수 있도록 농협과 협력하여 파풍망 및 관수 시설을 지원하여 태풍·가뭄 등 재해에 대비하고, 과원을 보호하여 안정적으로 감귤을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 이는 고품질 명품 감귤 생산을 위한 초석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완도자연그대로 감귤은 새콤달콤한 맛이 일품이며 해풍을 맞고 자라 당도가 높고 밤낮의 일교차가 커 껍질이 얇은 게 특징이다.
- 완도군 관계자는 “감귤 명품화 지원 사업을 통해 완도자연그대로 농업을 정착시킴은 물론 기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감귤 면적을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농가 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완도군



완도군, 기능성 색깔보리 5종을 첫 출하했다

- 완도군(군수 신우철)은 청산도에서 생산한 흑색보리, 자색보리, 청색보리 등 완도에서 생산한 색깔보리 24톤 중 11톤을 첫 출하 했다.
- 완도군농업기술센터에서는 청산도의 겨울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해양치유산업 먹거리 기반을 조성하고자 지난해 11월 색깔보리를 도입하여 17ha에 파종하였다.
- 색깔보리는 여름철 수분 부족시 수분 보충에 좋을 뿐만아니라 피로회복을 돕는 단백질, 철분, 미네랄 등이 풍부하다.
- 이번에 출하된 색깔보리는 흑색, 자색, 청색, 흰색, 겉보리 5종으로 색깔보리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보리전문기업체를 방문하여 계약재배 추진 및 종자공급 등을 위해 작년부터 10회 이상 접촉, 조율 및 협의를 거쳐 완도에 종자를 처음으로 공급하게 되면서 시작되었다.
-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첫 단계로 색깔보리 종자확보를 위해 종자증식단지를 조성하여 약 20톤 이상을 확보했다.
- 특히, 보리밥을 지었을 때 색깔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 유망한 신품종인 영백찰보리는 완도군에서 통상실시권을 취득하여 완도군만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영백찰보리 단지를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찰보리 시장에서 타 시군과 차별화되는 경쟁력을 갖추게 되었다.
- 완도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치유기능성 색깔 농산물을 쌀, 잡곡 까지 확대하여 해양치유산업의 먹거리 기반을 만들어 경쟁력 있는 특화산업이 되도록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출처 : 완도군(농업기술센터)



신안군, 양파생산 노력 및 비용절감을 위한 기계정식 교육

- 신안군은 7월23일 농업기술센터 대강당 및 농기계임대사업장에서 양파 재배농업인 100여명을 대상으로 양파 기계정식 요령과 안정적인 상자 육묘 기술 교육을 실시하였다.
- 이번 교육은 양파 기계정식에서 가장 중요한 육묘요령과 잎자르기, 비닐피복요령 등 실질적인 농가 활용에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이루어 졌으며, 양파정식기의 사용방법과 취급조작요령 교육을 통해 임대 농작업기의 활용도 향상에도 기여할 방침이다.
- 신안군은 양파 재배면적이 1,318ha로 전국에서 두번째로 많은 면적을 재배하고 있는 양파 주산지로 2016년부터 양파 정식기를 각 읍면 농기계임대사장에 배치하여 양파 정식에 따른 노동력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또한, 2019년에는 양파기계 정식 확대를 위해 100여 농가에 종자 코팅비를 지원하였으며 읍면 농기계 임대사업장에 양파기계 정식에 필요한 파종기 13대, 전엽기 18대, 휴립피복기 13대, 양파정식기 12대를 보급하여 양파기계화에 앞장서고 있다.
- 신안군은 민선7기 공약 사업인 밭작물 기계화율 향상을 위해 “신안 주력작목인 마늘, 양파, 대파, 시금치 기계화 작업을 위한 교육 및 시연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밭작물 기계화로 농업 인력 부족 해소와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패러다임을 세워 나가겠다”고 말했다.

*출처 : 신안군(농업기술센터)



진도군, “제15회 전라남도 농업경영인대회” 개최

- 진도군은 제15회 전라남도 농업경영인대회를 8. 13. ~ 8. 15. 3일간 개최한다.
- 한국농업경영인전라남도연합회가 주최•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전남의 미래는 농민으로부터’라는 주제로 열린다. 행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전라남도 도지사, 진도군수, 농업경영인과 가족, 농민단체 등 10,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라남도 우수 농특산물 품평회, 개회식, 농산물 패션쇼, 환영행사 순으로 다채롭게 진행된다.
- 한국농업경영인진도군연합회 박기태 회장은 “이번 행사는 전남농업경영인이 한국 농업의 새로운 활로 및 전남농업의 발전적인 미래를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 이동진 진도군수는 “전라남도 농업경영인대회라는 큰 행사를 진도군에서 개최한 것을 뜻깊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전남의 미래가 농민이 되도록 진도군에서도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진도군(농업기술센터)



해외 곡물시장 일일동향 ('19. 08. 12. 시카고 선물거래소)

- 대두 선물가격, 미 농무부의 수급보고서 발표에 앞서 건조한 기후에 대한 우려로 상승 -

- 밀 선물가격이 전일 대비 0.2% 상승했다. 밀 선물가격은 5일간의 골드만 롤(Goldman Roll) 기간 중 일부 인덱스 펀드가 포지션을 롤오버함에 따라 기술매수 및 스프레드 거래로 상승세를 보이며 2세션 연속 상승했다.
- 옥수수 선물가격이 전일 대비 0.2% 하락했다. 옥수수 선물가격은 건조한 날씨로 인해 미국 중서부 일부 지역의 농작물 수확량이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로 소폭 하락했다.
- 대두 선물가격이 전일 대비 1.0% 상승했다. 대두 선물가격은 건조한 미국 중서부의 날씨에 대한 우려와 월요일에 발표될 예정인 미국 정부 보고서에 앞서 무역업자들이 스퀘어포지션을 유지함에 따라 금요일 1주일 반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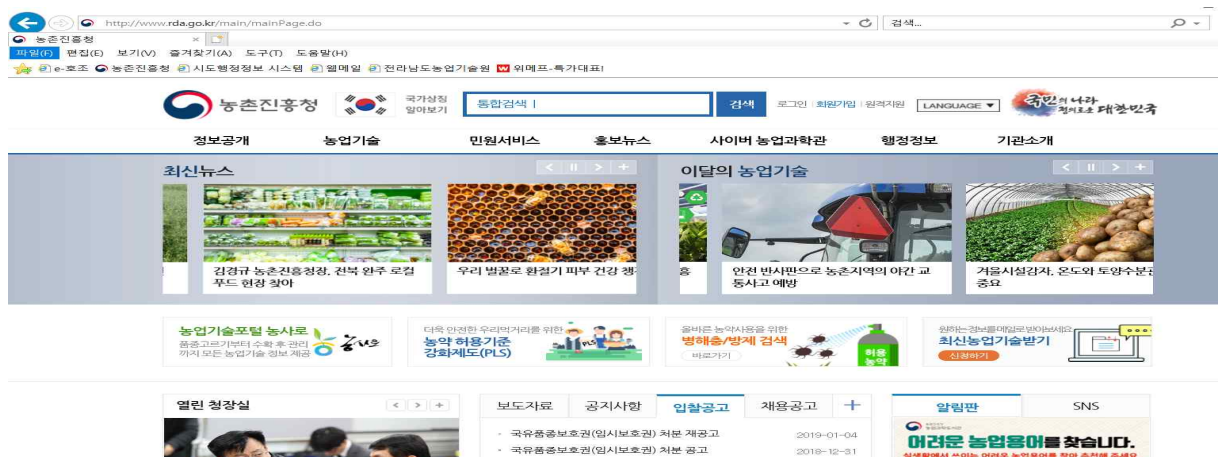


*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해외곡물시장정보



농촌진흥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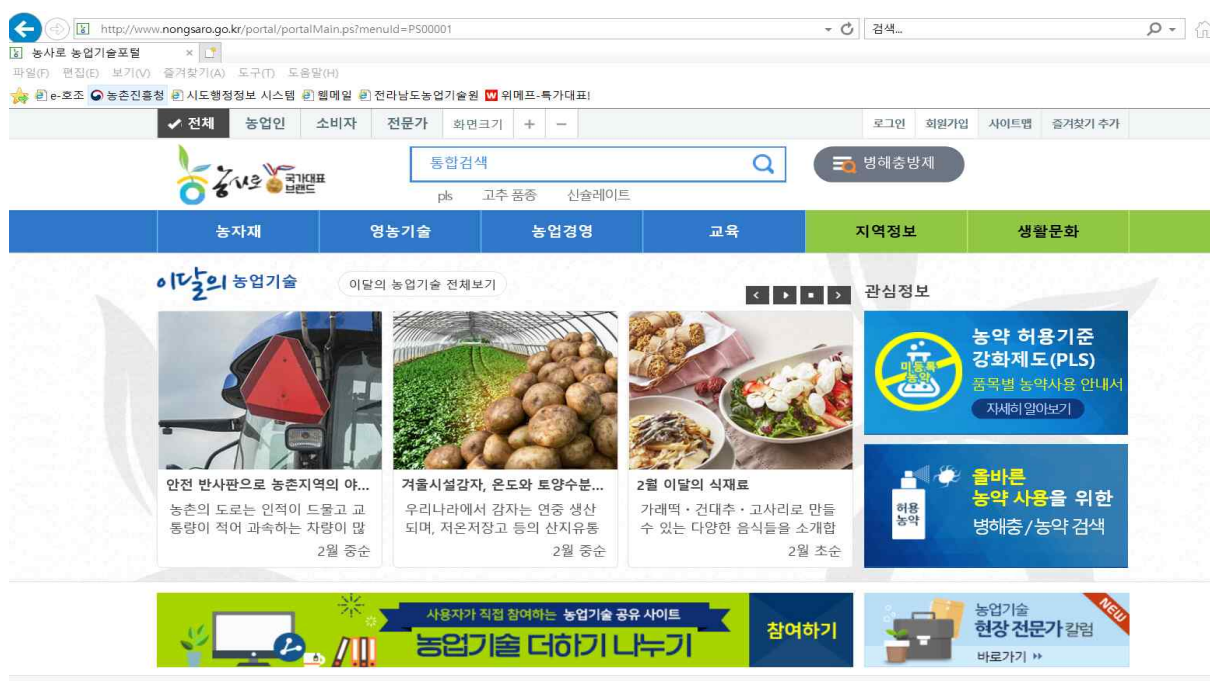
- 농사에 필요한 재배기술은 농촌진흥청(www.rda.go.kr)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농촌진흥청에서는 정보공개, 농업기술, 민원서비스, 홍보뉴스, 사이버농업과학관, 행정정보, 기관소개로 분류되어 있으며,
- 홍보뉴스의 새소식에서는 공지사항, 보도자료, 설명/해명, 주요행사계획, 인물/동정, 농촌지방소식을 확인할 수 있다.
- 홍보뉴스의 사이버 구독에서는 간행물 e-book(그린매거진, 월간농업기술), 뉴스레터(RDA뉴스레터)를 확인할 수 있다.
- 그린매거진과 월간농업기술은 월별로 발간되며, RDA뉴스레터는 매주 전파되어 확인할 수 있다.





농사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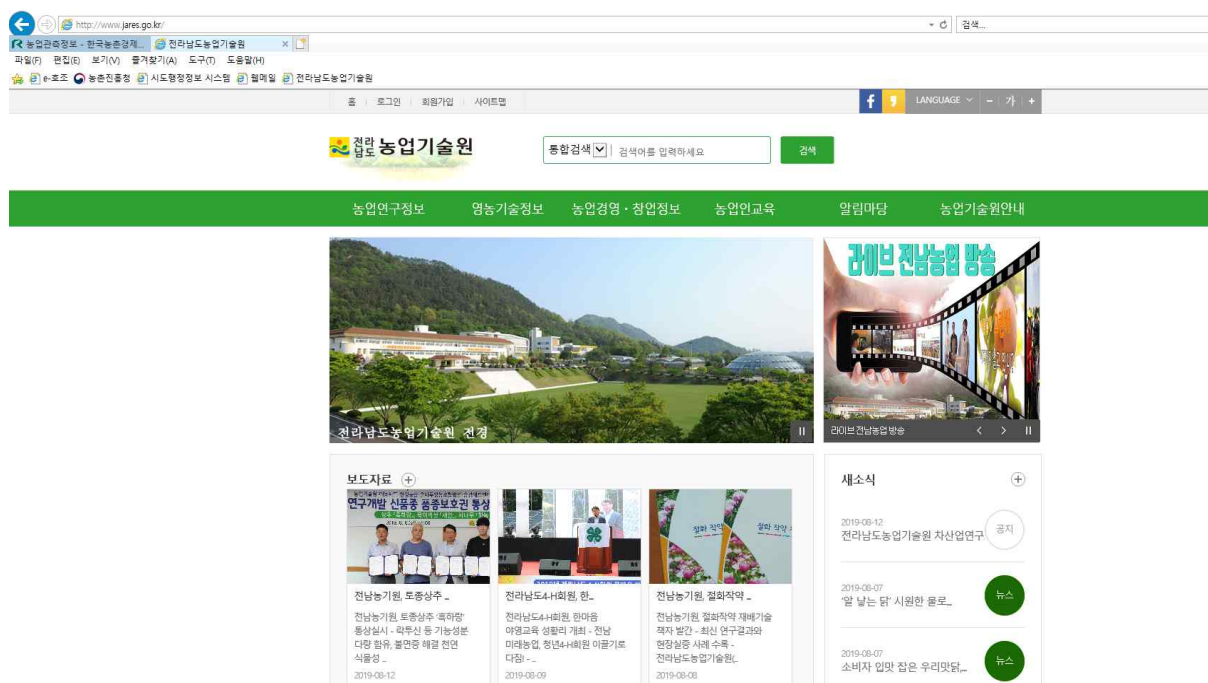
- 농사에 필요한 재배기술은 농사로(www.nongsaro.go.kr)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농사로에서는 농자재, 영농기술, 농업경영, 교육, 지역정보, 생활문화로 분류되어 있으며,
- 농자재에서는 품종, 농약, 비료 농기계, 한국표준사료성분표, 농자재관련 법령을 확인할 수 있다.
- 영농기술에서는 농업기술, 영농활용정보, 친환경유기농업, 연구성과정보, 농업도서정보, 해외농업, 수출농업, 농업환경, 축산분뇨, 곤충표본관, 빅데이터활용기술지원을 확인할 수 있다.
- 농업경영에서는 농산물소득정보, 우수사례, 경영기술, 농식품소비트렌드, 농축산물가격, 경제성분석기준자료, 농가경영관리프로그램, 농식품산업동향, 관측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전라남도농업기술원

- 농사에 필요한 재배기술은 전라남도농업기술원(www.nongsaro.go.kr)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전라남도농업기술원에서는 농업연구정보, 영농기술정보, 농업경영·창업정보, 농업인교육, 알림마당, 농업기술원안내로 분류되어 있으며,
- 영농기술정보에서는 주간농사정보, 작목별기술정보, 병해충발생정보, 친환경농업정보, 기술보급동향, 병해충사진검색, 품종정보, 농업기술동영상, 품목관리메뉴얼, 유통/가공 가격동향, 생산비절감 경영메뉴얼을 확인할 수 있다.
- 농업인교육에서는 월별교육일정, 농업인전문기술교육, 농업인교육, 농기계교육, 경영·정보화 교육 등을 확인할 수 있다.
- 알림마당에서는 보도자료, 농업기술뉴스, 전남농업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청렴한세상 - 영업정지 기간중에 편육을 제조·판매한 행위는 공익침해 행위?

영업정지 기간 중에 편육을 제조
판매한 행위는 공익침해행위일까요?





이와 같은 행위는 국민의 건강을 침해하는행위로 「식품위생법」의 벌칙에 해당하는 공익침해행위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이와 같은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사람을 철저히 보호하고 있습니다



*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주간 전남농업

VOL. 246

전라남도농업기술원 자원경영과

58213 전라남도 나주시 산포면 세남로 1508

Tel. 061)330-2592 Fax. 061)335-4199

